

kekikai

결계 結界

beyond fixed boundaries

극단 노틀 & 토니 압 컴퍼니
Nottle Theatre & Tony Yap Company



Performer & Staff

연출 원영오

출연 토니 압, 임소영, 이은아, 박정휘

작곡연주 메들린 플린, 팀 험프리, 톰슨 파운드리 밴드

설치미술 나오미 오타

조명디자인 윤광덕

무대감독 민경욱

대본 김현우

코디네이터 신지연, 차나영

프로듀서 케이스 파파스, 커스티 엘렘

Director Youngoh Won

Performers Tony Yap, Soyoung Lim, Euna Lee, Junghwi Park

Music Composition/ Performance Madeleine Flynn, Tim Humphrey,

Thompsons Foundry Band

Visual Installation Naomi Ota

Script Hyunwoo Kim

Lighting Design Kwangduk Yun

Stage Manager Kyoungwook Min

Coordinator Jiyeon Shin, Nayoung Cha

Producer Kirsty Ellem, Kath Papas Productions

kekkaï

결계 結界

beyond fixed boundaries

극단 노틀 & 토니 압 컴퍼니
Nottle Theatre & Tony Yap Company

kekkaï – beyond fixed boundaries

This new work kekkaï explores a Japanese Buddhist terminology which represents a line between the real and the unreal, the two incompatible realms. This interdisciplinary work portrays a series of shifting images and interactions evoking themes of a fluid concept of space that goes beyond fixed boundaries. It utilises dance and physical performance, text, live and recorded music and soundscape, and visual installation.

kekkaï – 구속의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작업 kekkaï는 일본 불교의 kekkaï라는 개념에 대한 통찰이다. 꿈과 현실처럼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세계를 이어주는 선으로 kekkaï는 표현된다. 이번 협업은 한정된 단일영역을 넘어 유동적인 공간에 대한 주제를 다양한 이미지와 상호작용의 변주를 통해 보여준다. 무용, 피지컬 퍼포먼스, 글, 미리 녹음된 음악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음악들 그리고 다양한 소리와 비주얼 설치 작업이 어우러져 kekkaï를 완성시킨다.

Here is kekkai

kekkaï is assuming 'the other world'. 'Inside' needs 'Outside' for the existence.
My world also needs other's world for the existence. There are many worlds in kekkai.

So kekkai is a uni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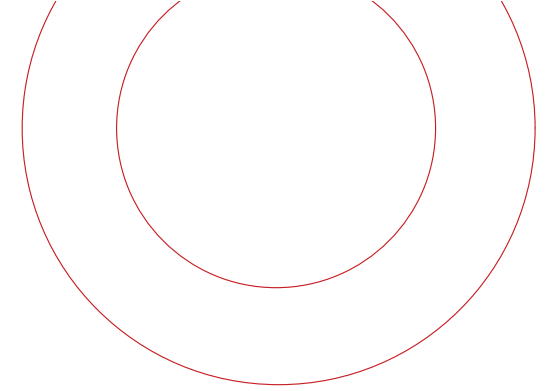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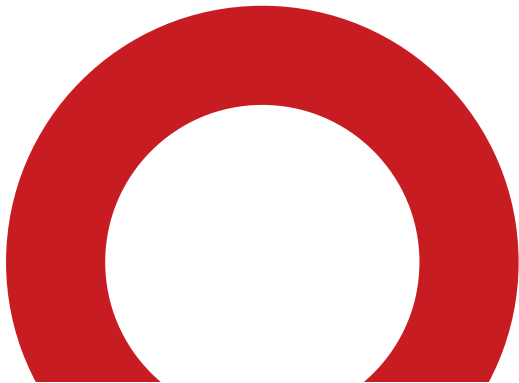
Dream and reality can not exist at the same time but they are touched each other. Sky can't meet ground but they are touched each other at the end of the sight.

Dream will be reality when the dream is broken,
reality will be dream when the reality is buried.

All the worlds are touched in the moment.
All the worlds are broken in the moment.

Just the time when broken,
my world embraces other worlds.

The moment kekkai embraces may be the eternity in our real world.



여기, kekkai

kekkaï는 다른 세상을 전제한다. '안'이라는 공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밖'이라는 공간이 존재해야 하듯, 나의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세상이 존재해야 한다. kekkai가 담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 각기 다른 여러 세상이다.

다시 말해, kekkai는 우주다.

꿈과 현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지만 맞닿아 있고
하늘과 땅은 만날 수 없지만 시선의 끝에서 만난다.

꿈이 깨어지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묻히면 꿈이 된다.
나는 다른 이의 하늘을 땅으로 밟고 있고 다른 이의 땅을 하늘로 이고 있다.

모든 세상은 찰나의 순간에 맞닿아 있고
모든 세상은 찰나의 순간에 깨어진다.

깨어지는 순간,
나의 세상은 다른 세상을 품는다.

kekkaï가 품는 찰나는 우리의 세상에서는 영원일지 모른다.

Nettle Theatre

celebrates its 20th anniversary in 2013. Since its inception, Nettle has been endeavouring to find a new theatrical language in its development of contemporary theatre productions, a 'universal' language through the use of voice, contemporary dance, mime and music. Nettle has performed in over 30 cities in Europe, Asia and Australia.

Tony Yap Company

work bridges East and West,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in works produced with alliances of other independent artists. Tony Yap, Madeleine Flynn, Tim Humphrey and Naomi Ota have produced a number of major works since they began collaborating in 2004; they are driven by a desire to influence contemporary art form development through the intersections of movement, music/sound and visual arts. Kath Papas joined as producer from 2010.



극단 노틀

극단 노틀은 2013년에 20주년이 된 단체다. 현대 예술 집단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연극 언어의 발견을 목표로 창단됐다. 그 동안 극단 노틀은 음성, 현대무용, 마임, 음악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새로운 연극적 언어의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탐구로 극단 노틀은 자신들의 새로운 연극 언어를 유럽, 아시아, 호주의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펼쳐진 공연으로 선보여 왔다.

토니 얍 컴퍼니

토니 얍 컴퍼니가 독립 아티스트들과 연계하여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고 전통과 현대의 가교 역할을 한다. 토니 얍, 메들린 플린, 팀 험프리, 나오미 오타는 2004년에 처음으로 공동 작업을 시작한 이래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다수 창작해왔다. 움직임과 음악, 소리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현대 예술의 한 조류를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들은 지금까지 왕성하게 작업을 해왔다.

케스 파파스는 2010년부터 프로듀서로 합류했다.

kekai 결계 結界
beyond fixed boundaries



Background

TYC and Nettle have a long history of collaboration. The companies' creative relationship had its genesis in the 2005 International Workshop Festival, instigated by Nettle Theatre, which Tony Yap first attended as a presenter/teacher, then the Little Asia Creators' Meeting in 2006 in Gwangju, Korea, where Won Youngoh and Yap were key artists. Won and Yap then came together with their companies and collaborators to make 'The Buddha My Body—A Palimpsest', which was performed in Seoul, Yogyakarta and Melbourne in 2008–2009.

창작 배경

극단 노틀과 토니 압 컴퍼니는 오랫동안 협업을 해왔다. 두 집단의 창의적 협업관계는 2005년 노틀에서 주최한 'International Workshop Festival'에서 시작됐다. 토니 압은 이 페스티벌에서 진행과 지도를 맡았다. 그 후에는 2006년 광주에서 개최된 'Little Asia Creator's Meeting'에 주요 아티스트로 극단 노틀의 원영오 대표와 토니 압이 함께 참가했다. 이를 계기로 협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두 집단은 협업을 위해 다시 모여 'The Buddha My Body—A Palimpsest'라는 작품을 창작해 냈다. 이 작품은 서울, 족자카르타, 멜버른에서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공연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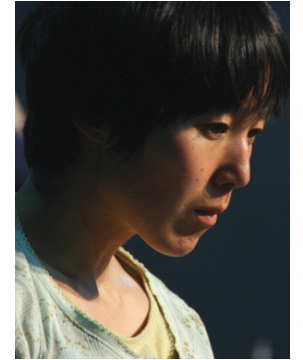
출연 Performer



토니 얍 Tony Yap



임소영 Soyoung 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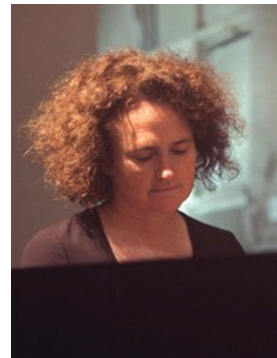


이은아 Euna Lee



박경휘 Junghwi Park

작곡 연주 Music Composition/Performance



메들린 플린 Madeleine Flynn



팀 험프리 Tim Humphrey

설치미술 Visual Installation



나오미 오타 Naomi Ota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예술경영지원센터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REATIVE
VICTORIA



문의 information

극단 노틀 033-732-0827 www.nottle.kr

토니 압 컴퍼니 www.tonyyapcompany.com

about kekkai <http://kathpapas.net/PortfolioItems/kekkai/>